

COMMUNITY PROJECTS BY ARTISTS

원정

인천 배다리·우각로

안양 석수시장 프로젝트 ▶

마석 이야기

동두천 프로젝트

리포트

기획자 인터뷰



박찬응 스톤앤워터 관장 6년 전부터 안양에서 지역

문화예술 활동과 어린이

예술교육, 안양천 살리기 등을 꾸준히 진행해온 스톤앤워터

(Stone & Water)의 박찬응 관장. 그에게 <석수시장 프로젝

트>를 구상하게 된 계기와 그 의미를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서

면으로 이루어졌다.



“예술을 통해 도시 한복판에 ‘고향 같은 마을’ 만들고 싶어”

지역공동체에 밀착한 예술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이전부터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해오긴 했다. 근로자 회관에서 미술교실 활동을 하거나, ‘그림사랑동우회 우리그림’에서 시민미술학교를 운영했고, ‘안양문예운동연합’ 결성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민주화 투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 무렵 결혼해서 조그마한 출판기획사를 운영했는데, IMF로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2001년에 가족들과 무작정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훈데르트 바서의 건물을 보고, 잘츠부르크에서 간판의 거리를 거닐며 ‘마을 만들기’라는 새로운 화두를 안고 한국에 돌아왔다. 오랫동안 살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석수시장의 빈 점포들과 골목과 안양천 등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옛 화실을 개조해서 ‘보충대리공간 스톤엔워터’라는 전시공간을 만들고 석수시장과 안양천을 아우르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고 내 자식들이 앞으로 살아갈 마을이니까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면 ‘고향 같은 마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것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고향 같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수시로 헌것들을 새것들로 교체하는 역동적인 땅, 대한민국 도시 한복판에서 예술을 통해 ‘고향’이라든가 ‘마을’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낫설고 생소하고 어색하고 부질없이 느껴질 때도 많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러지 않았다. 예술가란 ‘익은 밥 먹고 설은 짓 하는 사람들’이라고. 또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은 “예술가가 된다는 건 아무도 실패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실패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석수아트프로젝트(SEOKSOO ART PROJECT)의



약자가 SAP다. SAP는 수액, 활기, 활력 등을 의미한다. 군사용어로 쓰일 때는 ‘참호’, ‘아래로부터 천천히 전복시키다’는 뜻도 있고, 속어로는 바보, 멍충이라는 뜻이 있다.

석수시장 프로젝트의 목적은 무엇인가?

6년간 안양에서 실험해온 공공예술, 교육예술, 국제교류, 다원예술 활동의 성과들을 하나로 통섭하고 융합한 것이 석수시장 프로젝트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로 인해 사라져가고 있는 재래시장과 지역 경제공동체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져버린 미시 공동체의 자생성을 발굴하기 위해 시작했다.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문화마을을 만들어가고, 다문화 사회에 맞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예술작업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주변에는 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변화무쌍한 데 반해 석수시장은 아직 20년 전 모습 그대로다. 그런데 2007년 초 석수시장을 포함하여 주변의 광범위한 지역이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예고되면서 땅값과 집값이 폭등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을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진 건 아닌 듯하다. 뉴타운으로 개발하려면 10년은 족히 걸린다는데 그때까지 그 꿈을 먹고 살기엔 삶이 더욱 버겁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뉴타운이 확정되고 마을 사람들이 이주하기 전까지라도 지속적으로 석수시장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공동체를 재생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 뉴타운이건 새마을이건 마을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원하고 희망하는 그런 마을이 만들어지기를 꿈꿔본다.

프로젝트의 성과, 혹은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외 작가들이 3개월 동안 석수시장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안양, 특히 석수시장이라는 곳을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들을 접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안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및 스톤앤위터의 활동을 비평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봄으로써 지역주의예술 운동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스톤앤위터가 지향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마을 만들기과 다문화 공동체 운동을 다른 지역과 단체에도 촉발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동안 스톤앤위터는 어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는가? 또 올해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석수시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부터 스톤앤위터는 일상이나 지역과 관련한 프로그램 및 전시를 기획해왔다. 270명의 작가들이 만든 가구와 소품 등의 예술작품으로 21평짜리 원



룸을 꾸민 개관전 <리빙퍼니처&퍼블릭퍼니처>(2002년)를 시작으로, 16명의 영상, 실험영화, 설치미술 작가와 퍼포먼스팀이 안양 ‘신편럼예술센터’의 역사와 맥락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리바이벌>(2003) 등의 전시를 열었고, 지역 생태를 복원하는 문화예술 운동인 <안양천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본격적으로 석수시장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 2005년이다. 첫 회에는 <오픈더도어>, 2006년에는 <가가호호>, 작년에는 <국제 레지던지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진행했다. 올해에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각 나라에서 다양한 지역과 창작공간, 대안공간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을 초청하여 <2008 석수아트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안양 석수동에 만안교라고 1795년(정조19년)에 축조한 작은 다리가 있는데, 이 만안교를 출발점으로 안양, 광명, 금천구가 만나지는 경계지점까지 생태주의 예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과 2006년 <안양천프로젝트>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유형의 공공예술이 전개되도록 할 작정이다.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플러스 2% DBHS 교육예술사업>을 전개했는데, 그 과정에서 개발한 교육예술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동시대 예술가와 지역 주민과 학생에게 삼투되는 교육예술을 펼칠 것이다.

그밖에 동경예술대학이 위치한 토리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TAP(토리데 아트프로젝트)와의 작가교류 사업과 베트남 평화교류 사업 등을 전개할 생각이다.

스톤앤워터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나 문제는 무엇인가?

가장 큰 어려움은 공간의 불안정성이다. 재래시장 점포를 임대하는 것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레지던지 프로그램을 병행하기 힘들다. 지원 스태프의 고용 역시 불안정하다. 해마다 새로운 스태프진이 꾸러지는 것이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는 장점이 되지만,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아서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갖는다는 면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해마다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정확한 예산계획 수립이 어렵다.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고 집행하고 있나?

해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경기문화재단 기획 공모에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서 배정되는 예산을 기본으로 하고, 별도의 스폰서십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

2007년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신청한 석수시장 프로젝트 기획안이 공모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AFI(국제 아티스트 포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경기문화재



단의 지원금을 통해 일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지역의 몇몇 기업체와 개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기획자 두 사람이 입주 작가들의 숙소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전세보증금 1,500만 원을 마련해야 했고, 지원금은 두 달째부터 바닥이 나서 마지막 달에 운영비 500만 원이 추가로 요청되기도 했다. 그래도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저예산으로 운영하여 성공시킨 사례라고 자체 평가하면서 차기년도의 예산규모를 확정할 수 있었다.

이런 일련의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과 정기적인 자금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올해 예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되는 6천만 원을 기본자금으로 해서 지자체와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후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안양에는 스톤앤워터 외에 관에서 추진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도 있다. 이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지금 안양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공공예술이 펼쳐지고 있다. 안양시가 주관하는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와 민간차원에서 스톤앤워터가 주관하는 <석수아트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전자가 도시 건축, 조경, 도시디자인 등 도시환경 개선과 관련된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면, 후자는 지역주의, 도시생태, 공동체에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공공예술을 전개하고 있다. 공공(public)이라는 것을 공간적, 장소적 특성으로 바라보느냐, 공동체 간 소통의 문제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형식과 내용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공공예술’이라는 용어에는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라는가?

지난 5년 동안 많은 예술가들이 석수시장과 안양천에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여러 번 반복하며 다양한 흔적들을 남겼고, 그 흔적들은 ‘지역예술’, ‘공공예술’, ‘다원예술’ 같은 개념들로 불리며 신선한 반응을 불러왔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행위나 흔적을 개념 안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참으로 낯설고 불편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정작 주민들 입장에서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고 재래시장이 특별히 활성화된 것도 아닌데, ‘공공예술’이라는 개념을 앞세워 유세 떠는 모양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지금 하고 있는 예술작업이 10년, 20년, 혹은 30년이 지난 뒤에도 골목과 마을 어귀에 묻어 있는 그런 향기였으면 한다.

스톤앤워터가 지속적으로 안고 갈 화두는 어떤 것인가?

스톤앤워터가 참여한 <안양천 프로젝트>의 선언문 중 이런 내용이 있다. “우리가 지역주의 미술운동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무엇보다 수평으로 바라보며 생각하자는 것이다. 서울과 뉴욕과 파리와 베를린은 위아래로



나누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에서 그 차이를 구별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서울과 안양과 인천이 같은 형태로 지역의 차이를 명확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수평사고는 위아래로 나누는 경쟁과 순위를 매기는 사고에 대항한다.”

내가 살고 있는 석수동은 지역으로 보면 안양의 변두리에 속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중심이다. 단어가 가지는 자조성을 빼면 변두리는 무한하고 광활한 가능성의 영역이다. 변두리란 말은 어떤 지역의 가장자리를 뜻한다. 가장자리는 주로 지역과 지역의 경계에 속하는 곳이기도 하다. 나는 ‘경계’ 혹은 ‘사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경계는 진행형의 말랑말랑한 화두이다. 지역과 지역, 학문과 학문, 예술과 비예술 사이에서 예술과 삶의 경계를 넘나들며 소통하고 싶다. 그 사이를 미끄러지듯 유영하며 살고 싶다. ■